
서구 휴머니즘 비판과 새로운 휴머니즘의 지향: 『오릭스와 크레이크』를 중심으로

안동현 (서울신학대학교)

I. 들어가며

인권문제, 환경문제, 페미니즘 이슈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마거렛 앳우드(Margaret Atwood, 1939~)의 『오릭스와 크레이크』(*Oryx and Crake*, 2003)는 인류가 멸종한 뒤 혼자 살아남은, 정확히는 혼자 살아남았다고 믿고 있는 주인공 지미(Jimmy)의 시각으로, 그 멸종의 원인과 과정을 플래시백(flashback) 형식으로 서술한다. 인류는 환경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천재 과학자 크레이크(Crake)의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성적인 만족과 젊음을 유지시키면서 성병의 전염을 막는 기능을 하는 알약을 전 세계에 배포하고 그 약들이 충분히 퍼진 시점에서 숨겨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도록 조작한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기존 인류에게 치료법은 없다. 한편 크레이크는 휴머노이드(humanoid) 유사인간인 크레이크들(Crakers 혹은 Children of Crake)을 만들어 기존의 인류를 대체하도록 한다.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자 혼자 남겨진 지미는 유전자 조작으로 생긴 각종 변종 괴물 동물들 사이에서 이 크레이크들을 돌보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환경재앙에 대한 생생한 경고로 찬사를 받았다. 미래사회의 환경재앙이 다루어지지만 이 재앙들은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구조가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기에 독자에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작품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유전자조합 동식물, 지구온난화 등은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씨앗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집필에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사건으로 북극지방을 여행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는 것을 관찰한 경험과,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호주 원주민과의 생활을 꼽고 있는데(Ingersoll 163) 이는 현재 전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그 대안적 삶에 대한 탐구심이 작가가 이 글을 쓰게 한 힘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인류가 현재 택하고 있는 환경과파괴적인 노선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Hengen 82-84).

더 나아가 작가는 환경재앙 현상의 배후에 있는 인간관과 자연관에 주목하며, 인류가 멸종되고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됨의 의미와 휴머니즘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우리는 그 ‘인간됨’의 의미를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조건 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의 상황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 혹은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할 정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와 그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가 비유기적 알고리즘인 인공지능 발달과정을 들어 보여주고 있듯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얼굴인식, 체스, 바둑)을 차례로 성공해냈다. 전문화된 알고리즘은 의사, 운전기사, 교사, 투자전문가 뿐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생각되어 온 예술가의 영역까지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라리는 말한다(435-43).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방지하는 기술이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유전자를 분석하여 발병 확률이 높은 병을 예방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하라리 455-57). 현재의 발달된 상태와 발전 속도로 보아 인간 클론(clone)이나 휴머노이드의 출현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페페렐 10).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세계는 우리 시대보다 더 진전된 포스트휴먼

사회로, 광범위한 유전자조합 동식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드디어 인간유전자를 재료로 유사인간인 크레이크들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작가는 그 세계의 모습을 통해 인간됨이란 무엇인지,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몇 갈래의 철학적 반응과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담론들이 인간 존재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재고되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그들과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작가의 시각이 가진 의미를 더 선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와 인간 본성 및 주체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다루는 대표적인 철학적 방법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전통 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critical posthumanism)으로 크게 구별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 간에도 의견 차이에 따라 갈래가 있겠지만, 그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핵심적 내용은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Transhumanist Declaration” 2009)에 요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과학과 기술 덕분에 노화, 인지적 결함, 불의의 고통을 극복하고 지구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유한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존재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말하자면 인공적인 진화를 통해 현 인류와는 다른 새로운 종인 포스트휴먼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동원해 인간을 향상시키는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시도는 이 작품에서 지미의 아버지를 포함한 과학자들과, 천재 엘리트 과학자 크레이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작가는 생명을 다루는 태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믿고 그것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유전자 결합 동식물을 다루면서 마치 신 노릇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는 과학도들이나 과학자들을

작가는 비판적으로 묘사한다(51).¹ 지미는 맞춤 아기 제조(250)나 인간 불멸 프로젝트(290) 등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된 여러 기획들도 비판적으로 회상한다.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미의 입장은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나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같은 전통 휴머니즘 옹호자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후쿠야마는 트랜스휴머니즘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못 박으며 트랜스휴머니즘의 인간변형이 모든 인간이 본질상 평등하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버마스도 타인이 배아 단계에서 가하는 유전적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25). 이들 전통적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이 자율적이고 이성적이며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명확한 구분을 지닌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을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우선 생윤리학(Bioethics) 교수인 존 해리스(John Harris)가 주장하듯이 이미 인간 개인과 인간 종에 변형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문제는 변형할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이다(Arias 393에서 재인용). 인간 종의 변형은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다른 비판은 전통적인 휴머니즘의 주체가 많은 경우 백인 유럽 남성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보편성을 상정함으로써 타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박탈해 왔다는 점이다.

한편 일군의 철학자들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라고 불린다. 여기에는 대나 해러웨이(Dana Haraway), N. 캐서린 헤일스(N. Katherine Hayles),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전통 휴머니스트들과 달리 기술발전이 고도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전통 휴머니즘의 이원론적 형이상학과 인간관에 반대하여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브라이도티 55). 또한 이들은

1. 이하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인용된 내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과학기술발전을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와 다르다. 오히려 이들은 과학기술의 문제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들의 논의는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협과 위협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창조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논의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일찍이 대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985)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현대적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그녀의 이런 통찰은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그려지고 있는 세계를 우리 세계와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체의 구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녀는 근대적 휴머니즘과 근대적 인간 주체에 도전하며 '관계적이고 횡단적이며 체현되고 환경에 속해 있는' 포스트휴먼 주체성(이경란 xxiv)을 제시하는데 이는 앳우드가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탐색하는 주체의 상이기도 하다. 브라이도티가 추구하는 관계 속의 자이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극도의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포스트휴먼의 상황과 인간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소설(Arias 387) 앳우드의 『오릭스와 크레이크』를 연구함에 있어서 본고는 포스트휴먼의 사회가 주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이들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의 통찰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작가가 크레이크의 새로운 인간 제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통해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유추해본다. III장에서는 전통적인 휴머니스트에 가까운 지미를 통해 휴머니즘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IV장에서는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이 타자로 배재해 온 여성인물들과 크레이크들의 묘사를 통해 작가가 어떻게 새로운 휴머니즘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II. 크레이크의 이성중심주의적 휴머니즘 비판

이 장에서는 이 사회의 과학문명을 대표하는 크레이크를 통해, 서구 휴머니즘의 이성중심주의를 작가가 어떻게 비판하는지 살펴본다. 크레이크는 극단적인 형태의 도구적 이성과 과학기술 추구를 상징한다. 크레이크의 형상화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의지로 온갖 자연물 뿐 아니라 인간 종마저도 변형/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들어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세계에서 잘사는 소수와 못사는 다수는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소수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은 다시 자기들만의 성안에 산다.² 이 '분리'의 구조 속에서 성 밖의 사람들인 플리블랜드(Pleebland) 주민들과 제3세계 사람들은 이용되고 착취된다. 이 성안에 살면서 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과학 엘리트들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과학자나 과학도들은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명분으로 (그러나 사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유전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것은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태도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크레이크가 새로운 인간 크레이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분위기 하에서였다.

크레이크는 천재 과학자로, 현대 과학 문명을 대표하는 과학 엘리트이다. 그는 과학 연구자 엘리트들의 주거지 조합(HelthWyzer Compound)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뛰어난 수학, 과학 실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 대학들이 앞 다퉈 모셔가려 했고, 온갖 특권을 제공받는 왓슨-크릭 대학(Watson-Crick Institute)에 진학했으며, 대학을 졸업하자 이번에는 기업들이 그를 기다렸다는 듯 모셔간다. 최상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크레이크는 선택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리주븐에센스 주거 조합(RejoovenEsence Compound)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는 언어형

2. DiMarco는 분리와 봉쇄를 도구주의와 도구적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171).

인간들(word people)(25)과 대비되는 숫자형 인간들(number people)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이 때문에 이 사회의 핵심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대로 진행되면 인류 생존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가능할 정도로 환경 위기가 인류생존의 위협요소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실상 인간 종족의 멸망은 크레이크라는 '미친 과학자'의 기획에 의한 것이고, 그가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여러 요인들 및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한 상황에 파국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윤의 창출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거대기업들이다. 거대기업들은 플리블랜드(Pleeblands)의 가난한 사람들을 약물 실험대상으로 삼으며, 심지어는 약을 팔기 위해 일부러 병을 만들어 퍼뜨리기까지 한다(211).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외설적인 동영상, 동물이나 심지어 인간을 처형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폭력적인 잔혹영상 등이 오락거리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이윤 동기가 그것을 규제하려는 힘들을 이겼다는 의미이다. 연구에 몰두하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왓슨-크릭 대학은 학생들에게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효율성의 이름으로 용인되며 크레이크는 이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기도 한다(208).

유전자조작 동식물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것도 이윤 동기가 이 사회에서 다른 모든 동기를 앞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과 과학자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날개만 여럿 달려 있고 머리는 없는 닭고기 치키놉스(ChickieNobs)는 닭고기 프랜차이즈의 원가를 급격히 떨어뜨려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언급된다(203). 그들에게 음식은 하나의 상품일 뿐, 인간이 생명유지를 위해 자연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결여되어 있다. 외양은 개지만 늑대의 속성을 가져, 침입자를 문자 그대로 찢어놓을 수 있는 늑대개(Wolvog)는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을 위해 개와 늑대의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졌다(205). 새로운 인간 종을 개발한다는 파라디스 프로젝트(Paradise Project) 자체도 이윤을 노린 자본가들이 거액을 투자했

기에 가능했다. 성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 세계에서는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져올 이윤에 대한 욕망이 이들이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보다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교훈은 과학자들과 대기업들에게 세상을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Copley 44).

크레이크가 기존 인류를 파괴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기존 인간에 대한 환멸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그는 현재의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고 보고 암울한 지구 미래에 대해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내 놓는다. 계산상 더 이상 지구의 인구가 유지될 수 없으니 기존 인류를 폐기하고, 인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평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유사인간을 만들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가 인간에 대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작가는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지미가 사건의 실상을 알려려고 쓰는 마지막 메모에서도, 지미가 추리하는 그의 동기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347).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자신의 의지대로 폐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이 기획이야말로 이성중심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크레이크는 지구의 운명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에서 인간을 평가하고 그 논리적 결론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크레이크는 더 나은 신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인간성에 대한 이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균형적인 도덕감을 갖추지 못했지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능력은 갖춘 인간이 된 것이다. 그 결과 그가 만든 크레이커들은 인류를 대체할 만한, 인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 크레이크의 피조물 크레이커들은 기존 인간의 가장 우수한 점들을 조합하여 창조되지 않았다. 더 이상 유지가능하지 않은 기존 인간 대신 지구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 친화적일 뿐 아니라 지구의 황폐화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온갖 장치들(강한 자외선에 손상되지 않는 UV차단 피부와 불박이 곤충 퇴치제 등)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자기 땅을 갖고자 하는 욕심도 없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30세가 되면 기계의 스위치가 꺼지듯이 사망하도록 만들어졌다(303-4).

그들은 인류가 꿈꿔온 영원한 젊음이나 높은 지능, 강한 힘 등을 가지지 않았다. 크레이크는 발전된 인공지능을 장착하여 그들의 지능을 높이는 대신, 이들이 인류의 시작 수준의 지능을 갖도록 만든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포스트휴먼(posthuman)이자 전인류(prehuman)이라고 할 수 있다 (Marques 8). 지미가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이야기하듯이 이들은 자신의 아이로는 갖고 싶지 않은 존재다(305). 크레이크는 크레이커들을 만들 때 기존 인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들을 없애거나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인종주의를 없애기 위해 그들은 피부색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되었고 따라서 피부색에 의해 위계는 없다(305). 크레이크는 그들의 성(sex)에서 인간적인 특성들은 모두 지워버렸다. 그들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발정기에 도달하고 (이것은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에게 공통된 특징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때는 여성들의 영덩이와 복부가 파란 색으로 변한다. 한 여성과 네 명의 남성이 함께 관계를 가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보답 받지 못한 사랑이나 억제된 정욕 같은,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없을 것이다(305).

그리고 그 단점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고 기계적이다. 수명이 너무 긴가?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에 죽도록 시간을 맞추면 된다. 식량이 부족할 위험이 있는가? 나뭇잎만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인종주의가 문제인가? 피부색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미신적이고 우상숭배를 할 위험을 없애려면 상징적 사고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면 된다. 그러면 신(God)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크레이크의 관점이다. 많은 경우 크레이크가 제거하고자 한 단점들은 그의 개인적인 강박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짝짓기(인간의 섹스라고 할 수 없는 동물적인 성행위이다) 장면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강박을

제거한 기계적이고 동물 같은 생식행위만이 남은 듯 보인다. 이것은 섹스와 사랑에 대한 크레이크의 냉소적인 관점에서 기인한다. 지미와 달리 그는 사랑의 가치를 믿지 않으며 사랑을 “호르몬에 의해 유도된 망상 상태”(“a hormonally induced delusional state”, 193)라고 표현한다. 그 결과 만들어진 크레이커들은 순수하고 친절하며 평화주의적이지만 기존 인류 지미가 함께 지내기에는 지루하고 답답하다. 크레이커들은 지미와의 대화에서 애매성이나 위트, 냉소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존 인류를 몰살하고 새 인류를 제조하면 기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에게서 부정적인 부분들만 제거하면 인간을 장점만을 가진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인간의 장점과 단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일방적으로 잘라낼 수가 없다. 더구나 그 장점과 단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크레이크 자신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소양과 균형 감각을 갖추지 못했다. 크레이크의 생존형 인류가 실망스런 것은 크레이크가 이성만이 발달한 편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본명 글렌(Glenn)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던 유명한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에게서 따온 것이라는 설명(70)은 크레이크가 그 병(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세처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암시한다.³

크레이크가 오릭스와 관계에서 보여주는 남성우월주의는 그가 창조한 크레이커들의 구별된 성역할에 반영되어 있다. 크레이커들의 성역할은 현재 기준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평등한 것이다. 여자들은 아이를 돌보고 남자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오줌으로 영역표시를 한다(339). 그들은 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지미가 자신에게 생선을 잡아다 줄 것을 요청하자 생선을 잡는 것은 남자들이고 요리를 해서 그에게 갖다 주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의 불편함을 예민하게

3. 작가는 크레이크가 다닌 왓슨-크릭 대학을 「아스퍼거 증후군 대학」(“Asperger’s U”)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묘사한다(192). 이것은 크레이크의 이성중심주의가 단지 그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사회를 주도하는 과학 엘리트들 전체의 문제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감지하는 것도 여자들이다(362). 또 크레이크는 크레이커들에게 인류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조세핀 황후, 링컨, 퀴리부인 등)을 붙였다(100). 익숙한 역사적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 인류가 완전히 새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맞게 행동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링컨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지도자답게 행동한다(155). 요컨대 크레이크는 크레이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비슷한 인습적인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크레이크를 통해 작가는 다른 지식과 분리된 과학, 다른 소양과 분리된 이성만으로 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의 부정적인 극단을 보여주고, 이와는 다른, 생명과 관계를 존중하는 주체성이 어떻게 가능할지의 문제로 독자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크레이크와 대비되는 지미의 모습을 통해 휴머니즘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III. 지미의 휴머니즘이 가진 장점과 한계

크레이크가 인간중심주의의 부정적인 극단을 보여준다면 그와 대조되는 휴머니즘의 장점을 보여주는 인물이 지미이다. 지미는 작가의 분신이라 할 만큼 긍정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작가가 그를 이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작가는 그의 단점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휴머니즘을 위해 그가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본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겠다.

『오릭스와 크레이크』의 전 과정은 지미의 시각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되며, 크레이크가 주도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도 그의 관점으로 전달된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주요한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증언자이다. 지미는 냉소주의나 부도덕성에 오염되지 않은 선인이고 작가의 분신이며

(Simon 221) 탁월한 도덕적 감각, 책임감, 공감력과 상상력 등의 인간적인 가치를 소유했다.

그는 크레이크가 다니는 왓슨-크릭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전자조작과 관련된 많은 실험들에 대해 ‘신을 넘었다’는 건전한 가치판단을 하는 인물이다(206). 그가 늑대개(Wolvog)나 치키놉스(ChickieNobs) 같은 변종 동물들에게 느끼는 불편함은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이성적인’ 크레이크와 그를 구분 짓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경계심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서 그의 판단은 작가의 판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릭스와 크레이크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사라지면 크레이커들을 돌봐 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는 대로 그는 스스로의 생존도 힘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호자로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겨진 크레이커들을 돌본다.

그가 오릭스를 최초로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아동포르노의 아역 배우로 일할 때였는데 포르노를 보던 그는 오릭스가 화면 쪽을 바라보고 그와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91). 오릭스가 크레이크의 회사에 취직하고 지미와 크레이크 둘 다의 연인이 될 때까지 겪은 슬픈 이야기는 지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크레이크는 끝까지 몰랐을 것이고 알았다고 해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미는 오릭스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그녀를 납치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내고자 애쓰는데 그것을 통해 그녀의 고통을 나누고자 한다. 이처럼 지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공감적 상상력을 가지고 반응하며 이것이 그가 크레이크와 다른 점이다. 아마도 그것이 작가가 지미를 소설의 중심으로 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미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적 상상력을 가졌다. 지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들의 고기를 탐처럼 쌓아놓고 태우는 다음 장면은 그런 지미의 공감력과 책임감을

잘 보여준다.

At bonfire Jimmy was anxious about the animals, because they were being burned and surely that would hurt them. No, his father told him, The animals were dead. They were like steaks and sausages, only they still had their skins on.

And their heads, thought Jimmy. Steaks didn't have heads. The heads made a difference: he thought he could see the animals looking at him reproachfully out of their burning eyes. In some way all of this—the bonfire, the charred smell, but most of all the lit-up, suffering animals—was his fault, because he'd done nothing to rescue them. At the same time he found the bonfire a beautiful sight—luminous, like a Christmas tree, but a Christmas tree on fire. He hoped there might be an explosion, as on television.(18)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아버지와 달리, 그는 이렇게 겹겹이 쌓여 태워지는 동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이 무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처럼 그의 공감력은 비인간 존재들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애완동물로 키운 러컹크(racoon과 skunk를 합성한 rakunk)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주목해 볼 만하다(61). 심지어 그는 인간의 대뇌피질을 이식한 돼지 피구운(pigoon)에 대해 그것들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먹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24). 비인간존재들에 대해서까지 유대를 느낀다는 이런 에피소드들은 그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휴머니스트로서 작가와 공유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휴머니즘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미는 인문학 전공자이다. 작품 속의 사회에서 인문학이 지닌 위상은 그가 진학한 마사

그래엄 대학(Martha Graham Academy)의, 왓슨-크릭 대학과 대비되는 낙후된 시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문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면되고, 마사 그래엄 대학은 이과계열 대학에 진학할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곳이라고 설명된다. 그가 이 대학에서 배운 인문학적 지식은 이 사회에서는 속임수용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데 사용될 뿐이다. 사실 마사 그래엄 대학의 교훈—“우리학생들은 고용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졸업한다”(Our Students Graduate With Employable Skills. 188)—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학 중심의 이 대학도 큰 틀에서는 그 사회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지미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사회의 자본주의적 흐름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자와 언어를 다루는 협소한 의미의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무력하다고 할 수 있다. 크레이크 같은 과학형 인재가 주도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그가 가진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 자신이 회상하는 대로 그는 작은 틀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318).

그가 언어에 대해 가진 관심과 애정은 소통에 대한 욕구를 보여준다. 그는 이제는 사용할 일이 없어져 버린, 낯설고 고풍스런 단어들을 되뇌고 다니는데(68), 그의 이런 행위가 그 단어들을 다시 살려 내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차피 주위의 인간들이 모두 죽고 사라져 더 이상 소통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는 상상 속의 오릭스와 대화한다. 그의 이런 행위는 공감과 소통에 대한 그의 갈망을 보여준다. 이 모습에는 언어를 매개로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는 마치 숲 속에서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구조하듯이 오래된 단어들을 찾아내고 기억하려 노력한다(194). 또한 지미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자연을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만 보는 크레이크와 달리 지미는 순간순간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섬세한 언어로 표현해 낸다(371). 따라서 독자는 그의 눈을 통해 한편으로는 인간이 멸종하고 지구는 황폐해졌지만 지구에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 종말이 그야말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는

대로의 지구의 종말일 뿐(Ciobanu 153-54)이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미는 작가의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지미의 단점과 한계도 분명히 드러낸다. 지미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휴머니즘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복해야 하는 인간관 또한 가지고 있다. 이는 그의 여성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교시절 친구들을 모아놓고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재현하면서 그는 부모의 관계를 실상과는 다르게 강하고 단순한 아버지-연약하고 감상적인 피해자 어머니의 통속적인 관계로 표현한다(60). 오릭스와 관계에서도 지미는 그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는 기사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수시로 드러낸다. 그가 대학에서 자립(self-help)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는 사실(195-96)은, 그가 개인의 독립성과 노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 전통 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그는 대학의 동료들이 환경운동이나 반독점운동을 할 때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위에서 인용한 소들을 불태우는 장면에서 지미가 동물들의 아픔에 공감함을 지적했지만, 동시에 그는 불타는 동물더미를 불붙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티브이에 나오는 볼거리로 치환시킨다. 고통 받는 생명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그것을 대상화하고 가상현실처럼 간접화해서 느끼는 것은, 자연물 대상과의 직접적인 공감과 소통으로부터 단절된, 극도로 고립되고 소외된 모습이라 하겠다. 지미와 크레이크가 살아가는 이 소설 속의 세계에서 인간들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는 가상현실로 대체된다. 두 소년 이등을 맞대고 각자 자기의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체스게임을 하는 장면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77). 역사와 사회문제들은 게임으로 환원되고(80-81), 처형과 동물학대의 잔혹한 동영상이 비극작품을, 포르노가 로맨스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85).

엣우드는 크레이크를 통해 서구의 과학과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미를 통해 휴머니즘의 긍정적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위에서 지미의 여러 인간적인 장점들을 살펴보았으나, 작품 속에서 막강한 자본과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포스트휴먼 사회의 힘은 위협적이며 그에 대항하기에 지미가 가진 장점은 매우 무력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지미 자신이 구조화된 모순 속에 소외된 무력한 한 개인일 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내면화된 인간중심주의와 반여성주의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주의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자들에 대한 개방성을 기르는 과제가 그에게 남아 있다. 이것이 작가가 지미의 단점까지 보여주며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바였을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모여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지미는 모른 척하고 이대로 조용히 돌아설 것인가, 그들과 직면해서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가 고민한다 (DiMarco 171).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은 끝난다. 그가 이대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의 허무주의와 무력함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을 없앤다면 그는 기존인간의 말살이라는 크레이크의 기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작품 속의 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그럴 듯해 보이는 선택지는 마지막 항목이 될 것 같다. 그 선택은 인간사회와 문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인류는 대부분 죽었고, 이제 한 무리의 크레이커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문명은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어디엔가 생존해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기존 인간들과, 인류와 기계/동물의 경계에 존재하는 신인류를 포함한 것이다. 작품 속 포스트휴먼의 세계에서 이제 타자의 범위는 신인류인 크레이커들에게까지 확대된다.

IV. 새로운 휴머니즘의 필요

서구의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은 백인 남성을 중심에 둔 인간중심주의였다. 『오릭스와 크레이크』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인간중심주의가 배제한 대상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과 신인류인 크레이커들이다. 본 장에서는 샤론(Sharon)과 오릭스, 그리고 크레이커들이 제기하는 ‘타자’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책임감과 도덕의식,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부에 머물며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미와 달리, 지미의 어머니 샤론은 크레이커가 대표하는 환경과괴적인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한때 남편과 함께 유전공학을 다루는 회사(OrganInc)에서 일했고 유전자 연구에 참여했으나(57), 그 작업들의 부도덕성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한 뒤 집안에 머무른다. 인간 두뇌 피질을 돼지에게 이식해 인체조직을 키우는 피구운(pigoon)에 대한 남편과의 언쟁 장면은 샤론과 남편의 견해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Don't you remember the way we used to talk, everything we wanted to do? Making life better for people—not just people with money. You used to be so...you had ideals, then.”

“Sure,” said Jimmy's father in a tired voice. “I've still got them. I just can't afford them.”

“...What you're doing—this pig brain thing. You're interfering with the building blocks of life. It's immoral. It's ... sacrilegious.”

“...I don't believe I'm hearing this! Who've been listening to? You're an educated person, you did this stuff yourself! It's just proteins, you know that! There's nothing sacred about cells and tissue, it's just...”

“I'm familiar with the theory.”

“Anyway it’s been paying for your room and board, it’s been putting the food on the table. You’re hardly in a position to take the high ground.”(57)

부부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낮게 만들고자 하는 이상을 공유했으나 남편은 더 이상 그 이상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세포와 조직은 그냥 단백질일 뿐”이라는 논리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론은 생명체의 기본단위에 개입하는 것은 부도덕하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한다. 그녀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에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녀는 선택된 주거지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우울증에 걸린 듯 아들 지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녀의 극도로 무력한 모습은 자아실현에 실패한 중년여성의 좌절을 연상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의 좌절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무력함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이런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헬스화이저 주거지(HelthWyzer Compound)로부터 탈출해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알려진 빈민들의 주거지 플리블랜드(Pleebland)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비밀경찰(CorpSeCorps)이 계속해서 그녀의 행방을 쫓고 정기적으로 지미에게 찾아와 그녀의 행방을 추궁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운동을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크레이크나 지미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 주도하고, 지미 같은 인물이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사론은 양심에 따른 저항을 보여준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용감한 행동이었다. 그 저항의 시작은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들과 비인간 생물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여성이기에 더욱 유리했다고 할 수 있다. 맹목적인 과학과 이윤 추구가 남성적인 가치로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이 사론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본류에 저항하는 여성적 가치의 귀중함을 그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남성이 과학과 이익을 추구하고 모든 여성이 자연의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이라 하겠다. 단적으로 지미는 남성인 물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의 본류에 저항하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통찰이 보여주는 것처럼, 환경 위기는 유럽중심주의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자연과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이다(Copley 41). 여성에 대한 억압과 환경에 대한 억압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슈라고 할 수 있다(Martin 175). 그런 점에서 억압의 구조를 여성들이 더 잘 파악하고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Copley 54). 이 사회에서 여성 억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오릭스이다. 그녀는 여성이고 제3세계 출신이며 하층민 출신으로, 자본주의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크레이크의 세계가 이용하고 착취하는 세계를 대표한다. 그녀는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 출신으로 어머니에 의해 인신매매단에게 팔린다. 어머니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 그들은 그래야 나머지 가족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성적인 상품으로 소비되고 착취된다. 지미와 크레이크가 오릭스를 처음 보는 것도 아동포르노 사이트에서이다. 그녀가 자신이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기는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은(132), 뒤집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세계에서, 그녀는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영어를 배우고,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얻고, 마침내는 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크레이크의 회사 리주븐에센스(RejoovenEssence)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크레이커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그녀는 비록 성적으로 착취당하지만 자신을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억압자들에 대한 장악력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녀는 자신과 성매매를 하다가 걸린 남자들이 곤경에 빠진 모습을 보며 그들이 불쌍하다고 느꼈다고

말함으로써(133) 백인 남자들을 조롱하고 회화화한다.

지미가 오릭스와 맺는 관계의 의미는 크다. 오릭스는 이 사회에서 착취되고 배제된 존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미는 그녀의 고통과 상처에 연민을 보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작 오릭스 자신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지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 자신보다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혼자 살아남은 지미가 상상 속의 오릭스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미가 오릭스에 대해 가진 연민과 공감은 그녀가 죽은 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미의 시각을 통해서만 그려져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녀가 여성주인공으로서 충분히 생동감 있게 그려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앞서 크레이커들이 구 인류보다 나은, 환영할만한 존재인가의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작품에서 크레이커들은 남겨진 구 인류가 좋든 싫든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사실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인류의 정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과 인간, 기계와 인간의 중간단계인 크레이커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 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작가는 크레이커들을 통해 과연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은 무엇이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유전자 조합이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험실에서 탄생한 로봇이나 사이보그 존재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이 인간과 유사하게 되어가는 발전의 어떤 지점부터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로봇이나 사이보그는 인간사회의 국가시민으로 자연인과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가? (백중현 147~149 참조) 크레이커들은 언어로 지미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를 걱정하고 돌본다. 그들을 인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설사 지금 현재 그들이 충분히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옛우드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는

포스트휴먼의 상황을 소설 속에 재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휴머니즘이 가능한지, 새로운 휴머니즘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보인다.

작품 속 크레이커들은 현재 세계의 해석을 지미에게 의존하고 있다.⁴ 이것은 크레이크가 크레이커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을 갖지 않도록 설계했기에 생긴 역설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들은 애초에 프로그램된 대로만 존재하지 않고 ‘창조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인간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미가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고 이 작품이 오픈 엔딩으로 끝난다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크레이커들에게야 말로 새로운 시작이 열려있다. 남아 있는 인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그들과 어떤 미래를 이루어갈지는 그야말로 미지이기 때문이다.

V. 나가는 말

위에서는 앳우드가 『오릭스와 크레이크』에서 포스트휴먼의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됨의 정의에 대해 어떻게 ‘사색하고’(speculate) 있는지 살펴보았다.⁵ 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재방식과 의미를 바꿔놓을 만큼 발전한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작가는 기존 인류가 멸종되고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인류 멸망의 과정을 통해 작가는 휴머니즘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휴머니즘의 지닌 긍정적 가치를 옹호한다. 브라이도티가 말하듯이

4. 비평가 Appleton은 지미가 크레이커들에게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17).

5. 주지하는 대로 앳우드는 자신의 SF를 ‘Speculative Fiction’, 즉 사색소설이라 칭한다(2004, 513)

“한편으로는 인종을 멸절시키는 범죄에 공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거대한 희망과 열망을 지지하는 휴머니즘은 선형적 비판이 불가능”(브라이도티 27)하다. 작품 속 지미와 크레이크가 함께 하는 “피와 장미”(Blood and Roses) 게임은 인간의 성취와 잔학한 행위들의 교환게임인데, 나열된 교환 비율의 목록(78-8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가장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매우 잔악한 행동을 해온 존재들이다. 휴머니즘은 그만큼 위험하고 또 그만큼 위대하기도 하다. 옛우드가 이 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휴머니즘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그것이 함의하는 중요한 가치는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묘사된 과학자들의 생명경시와 그로 인한 자연 파괴의 묘사가 말해주는 대로, 옛우드는 과학기술의 남용과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적 거리를 보여준다. 크레이크는 감성이 결여된 이성, 인문학적 지식이 없는 과학, 공감력을 상실한 불모의 인간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과학 엘리트의 부정성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묘사에서 볼 수 있는 바 옛우드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과학과 이성, 진보에 대한 신뢰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미는 작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착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책과 언어를 사랑한다. 동료 인간들은 물론 동물들에게까지 동정과 공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는 도덕적인 판단력도 갖추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 사회에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자라기보다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백인 남성을 인간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배제하던 서구의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의 전통 위에서 있다. 그는 여러 종류의 편견을 지닌 인물이며 실행력이 부족하고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작가가 그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지미가 가진 인도주의적 휴머니즘의 장점을

단초로 비백인, 비남성, 비인간 존재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휴머니즘을 지향한다고 할 때, 그 새로운 휴머니즘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앞 장에서는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에서 타자로 인식되어온 여성인물들이 새로운 휴머니즘에 주는 통찰을 살펴보았다. 자본주의적이고 환경파괴적인 질서에 대한 사론의 저항은 새 질서를 위해 새로운 휴머니즘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목소리다. 특히 자연의 질서와 생명에 대한 경의심은 합리성과 이성의 이름으로 배척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사론만큼 적극적인 투쟁의 목소리를 가지지는 못했으나 착취당하는 여성의 존재를 상징하는 오릭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릭스에 대한 지미의 사랑과 연민, 공감이야말로 지미의 온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휴머니즘이 편협함을 넘어서는 열쇠라 할 것이다. 나아가 크레이커들의 존재는 우리의 인간 개념을 재고하고 확장시키도록 요구한다.

지미는 자신의 공감력과 상상력을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대상들을 포용하며, 그 공감의 대상을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지미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영웅적인 주인공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도 사회의 구조 속에서 무력한 개인이고,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잃어버렸으며 사회의 여러 편견 속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지미의 성공 여부를 떠나 그 탐색의 과정이 매우 지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미의 탐색은 여기서 끝나고 그는 일단 주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이어지는 『매드 아담』 3부작(*MaddAddam Trilogy*)의 다른 작품들, 곧 『홍수의 해』(*The Year of the Flood* 2009)와 『매드 아담』(*MaddAddam* 2013)에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머니즘’에 대한 작가의 탐색은 계속된다. 이 작품들에서 기존 인류와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더욱 본격화되며, 새로운 주인공들—대표적으로 『홍수의 해』의 여성 주인공들 토비(Toby)와 렌(Ren)—을 통해 새로운 휴머니즘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로버트 페페렐(1997), 『포스트휴먼의 조건』, 이선주 옮김, 아카넷, 2017.
- 로지 브라이도티(2013),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 백종현(2015),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철학사상』58, 127-53쪽.
- 유발 하라리(2017), 『호모데우스』,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 Appleton, Sarah, A. (2008) *Once Upon a Time: Myth, Fairy Tales and Legends in the Writings of Margaret Atwood*. Cambridge Scholar Press.
- Arias, Rosario (2011). "Life After Man?: Posthumanity and Genetic Engineering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and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Restoring the Mystery of the Rainbow*. Brill.
- Atwood, Margaret (2003). *Oryx and Crake*. Anchor Books.
- _____ (2004). "The Handmaid's Tale and *Oryx and Crake* in Context", *PMLA*, 119(3), 513-517.
- Ciobanu, Calina (2014). "Rewriting the Human at the End of the Anthropocen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Minnesota Review*, 83(1), 153-162.
- Copley, Soraya (2013). "Rereading Marge Piercy and Margaret Atwood: Eco-Feminist Perspectives on Nature and Technology", *Critical Survey*, 25(2), 40-56.
- DiMarco, Dannette (2005). "Paradise Lost, Paradise Regained: Homo Faber and the Makings of a New Beginning in *Oryx and Crake*", *Papers on Language and Literature*, 41(2), 170-195.
- Fukuyama, Francis. "Transhumanism," *Foreign Policy*, 23 Oct. 2009.
<<https://foreignpolicy.com/2009/10/23/transhumanism>>
- Habermas, Jürgen (2003). *The Future of Human Nature*. Polity.
- Haraway, Dana (2015).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985).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Routledge.
- Hengen, Shannon (2006). "Margaret Atwood and Environmentalism".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garet Atwood*. Ed. Carol Ann Howells, Cambridge UP, 72-85.
- Ingersoll, Earl G. (2004). "Survival in Margaret Atwood's Novel *Oryx and*

Crake", *Extrapolation: A Journal of Science Fiction and Fantasy*, 45(2), 162-175.

Marques, Eduardo Marks de (2017). "Human After All? Neo-Transhumanism and the Post-Anthropocene Debate in Margaret Atwood's *MaddAddam* Trilogy."

<https://periodicosonline.uems.br/index.php/REV/article/view/1770/pdf>

Martin, Javier (2009). "Dystopia, Feminism and Phallogocentrism in Margaret Atwood's *Oryx and Crake*." *Open Cultural Studies*, 3 174-181.

Simon, Linda (2003). "Zero Hour", *The World & I: Washington*, 18(8), 220-225.

"Transhumanist Declaration"(2009), Humanity+, 1 Sep. 2019.

<https://humanityplus.org/philosophy/transhumanist-declaration>

국문초록

『오릭스와 크레이크』는 기존 인류가 멸종되고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그림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의 정의에 대해 사색한다. 앳우드 는 과학자들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유전공학 실험들이 인류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주어 인간중심주의에 기초를 둔 과학기술의 남용을 비판한다. 기존 인류를 멸망시켜 크레이커들로 대체하고자 하는 크레이크의 시도는, 인간의 의지대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성중심주의의 부정적인 극단을 보여준다. 반면 지미는 책임감, 감수성, 공감력, 도덕적 판단력 등의 휴머니즘적 장점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자라기보다 작가의 관점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의 한계도 역시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전통 위에 있는 인물로 그 사회의 편견을 내면화하고 있고 그 사회구조 속에서 무력하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항하지 못한다. 휴머니즘이 나아갈 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 인물인 샤론과 오릭스는 새로운 통찰을 준다. 이들은 기존 이성중심의 휴머니즘에서 배제되어온 목소리였으나 새로운 휴머니즘이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목소리다. 특히 자연의 질서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합리성과 이성의 이름으로 배척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사랑과 공감에 기초해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는 지미와 오릭스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휴머노이드 인간인 크레이커들은 우리가 가진 인간 개념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키워드: 마거릿 앳우드, 『오릭스와 크레이크』, 포스트휴머니즘,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 휴머노이드

Abstract

Criticism of Western Humanism and the Pursuit of New Humanism in *Oryx and Crake*

Dong Hyun Ahn(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2003 novel *Oryx and Crake*, Atwood speculates on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and the definition of humanity while describing the extinction of humankind and the creation of a humanoid species known as 'Crakers'. By showing the fatal consequences of their genetic engineering experiments, Atwood depicts the novel's scientists as irresponsible and careless in their abuse of anthropocentric-based science and technology. Crake, a decidedly talented scientist, attempts to exterminate the entire human race and replace it with Crakers, whereby revealing the negative extremes of rationalism where the human will controls everything, including life itself. In contrast, Jimmy, Crake's ex-childhood friend, holds a humanistic viewpoint. Jimmy possesses virtues such as responsibility, sensitivity, and empathy. Jimmy's empathy is not limited to other humans but extends to non-human beings. However, he is powerless to resist Crake's society as he internalizes the prejudices of the Craker society. In seeking a new path for humanism, the female figures of Jimmy's mother, Sharon and his lover, Oryx give new insights. Traditional rationalist humanism silences the female voice, but in this new form of humanism, their voices must be heard. In particular, we should not disregard those who possess awe for life and natural order in the name of rationality and reason. For example, Jimmy and Oryx's attempt to overcome prejudice based on love and empathy should also be considered important. Furthermore, the humanoid Crakers force us to rethink our concept of humanity.

Keywords: Margaret Atwood, *Oryx and Crake*, posthumanism, humanism, anthropocentrism, humanoid

Received : 10 October 2019
Reviewed: 17 October 2019
Accepted : 18 October 2019